설교란 무엇인가?

설교란 무엇인가?

설교(說敎)는 예배(禮拜)가운데 선포(宣布)되고 해석(解釋)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臨在)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이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설교자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해석하여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복음설교

복음설교란 사도들이 선포한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요 주인이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단순한 복음을 매 설교 시간마다 선포하는 것이다.

복음 선포가 없는 설교는 비록 설교의 형태를 지니고 있더라도 진정한 설교라고 말할 수 없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이 우리의 구세주와 주인이라는 것, 그것만이 복음의 핵심이며 요체이다. 십자가의 복음 선포가 빠지면 성경과 관련된 수많은 주변 이야기를 하더라도 복음설교라고는 말할 수 없다.

복음설교는 본질적으로 종말론적(終末論的)인 설교의 특성을 가진다. 모든 설교는 종말론적(終末論的)인 설교이다. 그리고 설교자는 오직 설교로만 말한다.

그 한번의 설교가 설교자에게도 생애의 마지막 설교요, 듣는 성도에게도 그가 들을 수 있는 생애 마지막 설교라면, 그 마지막 설교에서 선포해야 하고 또 들어야 할 말씀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뿐이다. 종말(終末)의 설교가 도덕 설교, 율법 설교, 세속 설교, 교양 설교일 수는 없지 않은가?

복음설교에 있어 특별한 기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성경 그 자체의 깊이를 가능한 한 잘 드러내어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좋은 설교이다. 복음설교의 주안점(主眼點)은 어떻게 하면 본문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어 이를 성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본문의 의미를 잘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본문만 볼 것이 아니라, 첫째, 성경 전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message)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이 우리의 구세주와 주인이라는 것, 그것만이 복음의 핵심이며 요체이다. 그러므로 사도바울은『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고백하였다(고전 2:2).

둘째, 본문의 의미를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중시(重視)하여야 한다. 성경은 한 문단 한 문단, 혹은 한 절 한 절 끊어서 쓴 책이 아니다. 다만 강해와 설교의 편의를 위해 한 문단 또는 한 절 정도의 본문을 재료로 사용할 뿐이다. 따라서 설교자는 본문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문맥 속에서 씌여졌는가 하는 점에 주목하고 그 문맥 속에서 본문을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본문의 표현보다 그 문맥을 더 강조하여 해석해야 할 때도 있다.

셋째, 본문의 의미를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는 성경이 씌여졌던 당시 팔레스타인의 역사적 상황, 즉 삶의 정황(Sitz im Leben)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문화적 배경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을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감안할 때 본문의 정확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고 진지하게 탐색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복음설교는 성경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지금 여기서(here and now)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설교이다. 성경은 단순한 옛 글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설교의 제1차 청중

오늘날 설교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중의 하나는 그들이 청중(聽衆)을 향하여 설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설교의 제1차 청중은 하나님이다. 성도들은 설교의 제2차 청중일 뿐이다. 우리의 설교를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예민하게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설교한다고 생각해보라!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강단에 설 때마다 전심(全心)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덧입음을 사모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설교, 하나님께서 흡족해하실 설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설교, 주의 음성을 대변하는 설교, 이것이 설교자의 본분이며 책임이다.

진정한 복음은

설교는 구원의 기쁜 소식 곧 복음(福音)을 선포하는 것이다.

진정한 복음은 엄중하게 죄를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한다.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에 도전하고, 삶의 모순을 드러내며,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갈등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때로 복음 설교자는 성도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설교자는 이것을 두려워하면 안된다.

복음을 흐리게 하고 왜곡시키면, 하나님께 버림당한다는 사실을 설교자는 늘 명심하여야 한다.

단 한명의 성도라도

설교를 듣고 단 한명의 성도라도 진정 은혜를 받는다면 그 설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한 설교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다.